

광주시·전남도, 탄핵 정국 안정대책 마련

상황실 구성·비상근무 체계

AI 확산 방지 활동 주력

복지사각지대 지원 강화

광주시와 전남도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통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개시된 데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지역안전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12일 행정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지역안전대책상황실을 구성해 행정자치부·자치구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신년 첫 업무개시 시민생활현장 방문 ▲전공직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방역대책 추진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 추진 등이다.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공직사회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어려움을 겪는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에 나선다.

모든 공직자가 부서별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62곳을 방문하고, 새해 첫 업무를 소외된 시민생활현장을 찾아 민생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시작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축산시설을 매주 2차례 일제 소독하고 가금농가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차단에 주력한다. 또 지역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조기지급 독려, 광주시 발주 공사대금 조기 집행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에도 지역사회의 체불임금 유지를 유익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불안함 없는 시민 생활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AI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에서 제외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7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을 강화하는 등 차단에 주력한다. 또 지역기업의 체불임금 발생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급공사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조기지급 독려, 광주시 발주 공사대금 조기 집행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에도 지역사회의 체불임금 유지를 유익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불안함 없는 시민 생활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AI 확산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집중 시행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에서 제외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2017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지원 추진단을 운영한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추진단은 도와 각 시·군에서 운영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및 사회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재점검한다. 현장 방문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긴급복지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 6개소였던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하반기 61개소로 확대하고, ‘온정우체통’을 15곳에 설치해 도민 누구나 자신이나 이웃의 어려움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국 시도지사들 오늘 긴급간담회

경제·재해 등 공조 방안 협의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관

련 정국불안 불식을 위한 시·도 차원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경제 활성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재해·재난 등 시도 간 공조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윤 시장과 이 지사 외에 서울·세종·충남·경북·강원·제주 등

8개 시도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간담회 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최문순 강원지사는 12일 “대통령이 연루한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현정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져 시도지사들이 무겁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을 모아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하고자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앞서 9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가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성금 1억 원을 전달한 데 이어 서문시장 화재 수습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등과 관련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혁신산단 산학융합지구

산자부 공모 사업 최종 선정

나주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산학융합지구는 산단에 대학 캠퍼스와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 산학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 5개 지구가 경합을 벌인 결과 나주혁신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나주혁신산단은 앞으로 5년간 국비 120억원, 도비 25억원, 나주시 50억원 등 모두 323억원을 들여 산·학·연·관이 융합된 에너지 신산업 융합벨트로 조성된다.

이달부터 2021년 11월까지 나주혁신산단 내 9500㎡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목표대 2개 학과(전기및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전남도립대 2개 학과(신재생에너지전기와, 정보통신과)가 이전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갖출 예정이다.

또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 강화사업, 근로자 문화복지사업 등 산단 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남북 부부’ 우리 이웃일 수 있어요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세계 이주민의 날’(18일)을 맞아 서울시와 함께 12일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에 이환권 조각가의 ‘남북 부부상’을 전시한다. 탈북 남성과 남한 여성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형 조각상으로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II’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주민 인식 제고 캠페인의 일환이다.

/연합뉴스

기자 노트

다시 검증대 선 이낙연 리더십



윤 현 석
정치부 행정팀장

이낙연 전남지사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렴도 최하위 추락이 이 지사의 2년 5개월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결과 전남도는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최하위인 17위로 하락했다. 박준영 전 지사시절인 2010년부터 하위권을 맴돌던 청렴도가 민선 6기 들어 더 낮아진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년간 ‘성적표’를 받은 즉시 부패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반성 성명서’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충격은 컸다. 이 지사 자신도 12일 실국장토론회에서 “빠아프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에게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표현할 정도다. 직원들 역시 이례적으로 전남도공무원노조 일반계시판에 연이어 글을 올리고 있다. 만년 청렴도 최하위권 지자체의 위축된 분위기, 개선해 가고자 하는 의지 등도 담고 있지만, 상당수는 그동안의 이 지사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누구 하나 속마음을 시원하게 이야기할 공간과 장치가 없다. 지사님께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아직도 직원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질책하고 힐난하고. 이런 조직에 누가 애정과 충성심을 갖겠느냐.” “예전에도 청렴도가 낮았지만

그때는 인사 비리가 많았습니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믿습니니다만 지사님이 변하셔야 합니다. 질책만 하시는 지사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으로서 리더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이 지사와 마주하는 직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외부에 여과 없이, 또는 조금 과장되게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전남도의 미래 방향 제시, 호남 상생,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반면 조직 내·외부에서는 권위적이고 토론 없는 지시, 지나친 의욕에 의한 과도한 목표 설정, 소통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대와 등과 관련해 비판이 거듭됐다. 전남도 상위 공직자와 업무를 직접 맡아 추진하는 사무관 이하 직원들이 조화·융합하지 못한 원인으로 중간간부들이 리더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리더의 의지와 정책이 조직 내부에서 왜곡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것이 한 대학교수의 진단이다. 전남도의 청렴도는 분명히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쪽에 추가 기운다. 그런데 취임 2년이 넘어서었는데도 조직원들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리더가 새로운 리더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반기문 유엔 ‘고별연설’...업무 마무리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자정(한국시간)부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유엔총회에서 ‘고별연설’을 하고 지난 10년에 걸친 유엔 수장으로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임기는 오는 31일까지지만, 193개 회원국에 공식으로 작별을 고하는 것은 이날 총회에서이다. 신·구임 사무총장의 이·취임식의 성격으로 내년 1월 1일 취임하는 제9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내정자도 이 자리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세계 5개 지역의 대표들이 차례로 등단해 반 총장이 이룬



세계 평화·개발·인권 분야의 공적을 평가하고 퇴임하는 반 총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헌사’를 했다.

반 총장의 이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마지막 연설에 나선다. 반 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으로 큰 영광이었다”라는 요지로 회원국들에 감사를 전했다.

내년 1월 중순 귀국 후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 총장은 이어 유엔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한다. 16일에는 유엔총합의자단(UNCA)과의 기자회견이, 20일에서 23일 사이에는 유엔본부에 출입하는 한국 특파원단과의 기자회견이 각각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권 도전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2017년도 전기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비지원 FTA/국제무역전공 석·박사과정 모집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과정 15명(4학기) / 박사과정 5명(4학기)

수업시간 및 교육내용

· 수업은 **주중 야간(19:00~)** 및 **토요일**에 실시함

· FTA비즈니스모델, 무역경영 및 수출입실무, 원산지제도 외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전형방법

· 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이메일 사전접수	2016. 12. 1(목) 10:00 ~ 12. 23(금) 17:00	· ita.business@daum.net 으로 지원자 연락처(성명, 소속, 연락처) 송부
인터넷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16. 12. 27(화) 10:00 ~ 2017. 1. 9(월) 17:00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진학사어플라이 http://www.jinhak.com/ (콜센터 1544-7715)
입학지원서(세출) 및 서류제출	2016. 12. 27(화) 10:00 ~ 2017. 1. 10(화) 17:00	· 인터넷 접수 후 아래의 주소로 송부 또는 방문 접수 (우)61452 광주광역시 동구 밀문대로 309(서석동)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학팀

※ 구술시험(면접),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일정은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지

모집요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및 FTA비즈니스학과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 FTA비즈니스학과 062)230-7283 대학원 062)230-6401

조선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